

현대차, '2026 아반떼' 출시..선호품목 기본화

✎ 최정필 기자 | ⓒ 승인 2025.04.15 11:15

- 고객 선호 사양 기본화로 상품성 강화한 연식 변경 모델 15일(화) 판매 개시
- ▲버튼시동&스마트키 ▲스마트키 원격시동 ▲스마트 트렁크 등 기본 적용
- 하이브리드는 기본 트림에 선호 사양 적용한 '모던 라이트' 트림 신규 추가
- N 모델은 선택 사양 묶어 합리적 가격에 제공하는 'N팬 패키지' 2종 신규 운영



현대자동차가 준중형 세단 '더 뉴 아반떼'의 연식 변경 모델 '2026 아반떼'를 15일(화)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026 아반떼는 고객의 선호를 고려한 편의 장비 및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기본화로 상품성이 더욱 높아진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는 2026 아반떼에 ▲버튼시동&스마트키 ▲스마트키 원격시동 ▲웰컴 시스템 ▲스마트 트렁크 ▲도어 포켓 라이팅(앞)을 기본 적용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모던’ 트림에는 ▲고속도로 주행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스탑앤고 기능 포함)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안전구간, 곡선로)을 기본화 함으로써 고객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주행 경험을 제공하며, 최고 트림 ‘인스퍼레이션’에는 17인치 알로이 휠&타이어를 기본 적용해 고급스럽고 역동적인 느낌을 더했다.

현대차는 ‘모던 라이트’ 트림을 새롭게 추가한 ‘2026 아반떼 하이브리드’도 판매를 시작했다.

모던 라이트 트림은 스마트 트림을 기반으로 고객 선호도가 높은 ▲가죽 스티어링 휠(열선 포함) ▲가죽 변속기 노브 ▲1열 열선 시트를 적용하면서도 고객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현대차는 2026 아반떼 하이브리드 모던 트림에 스마트폰 무선충전 시스템 및 현대 디지털 키 2 터치 사양을 기본화 해 더욱 편리한 차량이용 환경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현대차는 N 브랜드 10주년을 기념해 ‘2026 아반떼 N’에 도심과 트랙 등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선택사양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N팬(Nthusiast) 패키지’를 추가했다.



N팬 패키지는 ▲N DCT 패키지 ▲N 현대 스마트 센스 I ▲N 현대 스마트 센스 II 사양을 공통으로 ▲N 컴포트를 추가한 '시티 팩(City Pack)'과 ▲N 라이트 스포츠 버킷 시트를 추가한 '트랙 팩(Track Pack)'으로 구성된다.

현대차는 더욱 많은 고객이 아반떼 N의 상품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N팬 패키지의 가격을 개별 사양으로 선택했을 때보다 100만원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 개별소비세 5% 기준)

판매 가격은 가솔린 1.6 모델 ▲스마트 2,034만 원 ▲모던 2,355만 원 ▲인스퍼레이션 2,717만 원이며, ▲N라인 2,806만 원이다.

하이브리드 모델의 판매 가격은 ▲스마트 2,523만 원 ▲모던 라이트 2,549만 원 ▲모던 2,789만 원, ▲인스퍼레이션 3,115만 원이며, ▲N라인 3,184만 원이다.

N 가솔린 2.0 터보 모델의 판매 가격은 3,309만 원이며 LPi 모델의 판매 가격은 ▲스마트 2,172만 원 ▲모던 2,492만 원 ▲인스퍼레이션 2,842만 원이다. (※ 개별소비세 3.5% 기준, 하이브리드 모델은 세제혜택 반영 후 기준)

한편 현대차는 2026 아반떼 출시를 기념하며 이달 29일(화)까지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주유비 지원 이벤트 및 모던 라이트 트림 고객 대상 ▲17인치 알로이 휠&타이어 ▲하이패스 무상 장착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반떼 N 구매 고객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차량 반납 유예형 할부와 저금리 운용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N 파이낸스 할부' 및 기존대비 월 납입금을 낮춘 'N 파이낸스 렌트/리스' 등 금융 프로모션을 지난 3월 출시해 지속 운영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참조)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연식 변경을 통해 젊은 고객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아반떼의 상품성을 더욱 높였다"며 "특히 동급 최고 수준의 연비, 첨단 지능형 기술을 적용한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새롭게 추가된 모던 라이트 트림으로 더 많은 고객이 하이브리드 차량의 매력을 경험해 보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정필 기자 choiditor@carmgz.kr